

시론

당신은 낙엽 너머의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김 선 기 전남도립대 웰니스학과·문학평론가

아! 모카 향이 잔잔히 내려앉아 깔린 가을이다. 이맘때 유독 커피를 좋아했던 다형 김현승이 불현듯 생각나고, 따라서 그가 읊은 「가을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혀에 감긴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수로 잊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지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 사이를/ 외로이 걷게 하소서// 그러나/ 내게 주신/ 가장 뜨거운 것들을/ 저들 먼 별빛 속에/ 차가운 바람 속에/ 다 사라지게 하소서.

「가을의 기도」는 다형이 조선대 문리대 교수로 재직하던 1966년 4월 《문학예술》에 발표된 시이다. 한국 전쟁 직후의 시대적 혼란 속에서 시인이 선택한 방식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기도'였다. 그러나 그 기도는

종교적 교리가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묵상과 고백이었다. 그래서 이 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생생하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첫 구절은 계절의 이름을 빌려,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한다. 다형의 가을은 단풍의 계절도, 추억의 배경도 아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이자, '비움'이라는 태도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모든 게 떨어져 나간 자리에 고요히 드러나는 나무처럼, 인간도 겹겹을 벗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

현대는 과잉의 시대다. 넘치는 말, 정보, 욕망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놓친다. 우리는 SNS 속 이미지, 타인의 시선, 과시적 자아의 그림자를 붙잡느라 본래의 자아와 멀어진다. 「가을의 기도」는 그런 시대를 향해 '멈춤'과 '비움'이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그 모든 그림자마저도 내려놓으라고. 그것은 포기의 권유가 아니라, 자기 회복의 요청이다.

이 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종교적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의 언어다. 다형에게 기도는 무릎 꿇는 행위가 아니라,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통로였다. 그래서 오늘날 '마음챙김'이나

「명상」으로 불리는 현대적 실천과도 공명한다.

따라서 「가을의 기도」는 한 시대의 산물도, 한 존재의 선언이다. 시대는 변해도 인간은 여전히 고독하며, 그 고독 속에서 삶의 진실을 찾으려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형은 언어를 절제하고, 감정을 정제해 고요한 시공간을 창조했다. 그 속에서 독자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된다. 그것이 이 시의 가장 큰 힘이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자기 개발과 성장의 언어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 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보여주려 하지 말고, 더 말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떨어지고, 감추고, 침묵하라. 그것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존재를 더 온전히 깨닫기 위한 실천이다. 그런 점에서 「가을의 기도」는 자기 치유의 언어이며, 현대인의 내면을 위한 깊은 숨이다.

다형 김현승의 시를 오늘에 다시 읽는 일은,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그 시의 언어는 결코 낡은 게 아니다. 오히려 과잉된 이 시대를 향해 가장 단단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떨어진 잎들 너머의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이 고요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비로소 「가을의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

자치칼럼

급속한 시대의 변화와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서 순 북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명예교수

국민을 놀라게 한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100일이 더 지났다. 국민주권정부라 명명한 현 정부는 광복절에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실질적 주권자임을 상징적으로라도 보여 주자는 취지인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입법·사법부의 3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보전하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며, 삼권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국민주권 아래 삼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 인권은 독재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된 역사가 있었기에, 국민주권주의가 삶의 현장에서도 진실한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결코 시장이나 군수가 아니라 주민인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칫 시장 군수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주민의식을 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행정 시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내지 자치권자인 주민이 당연한 권리로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공무원은 주인인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것이다. 행정은 어원적으로도 국민 내지 주민에게 '봉사하다'는 의미이다. 누구에게? 바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바로 공직인 것이다. 그런데 주민이 주인됨을 제대로 자각하고 주민의식을 발휘하고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주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아니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주민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미 20여 년 전, 즉 2006년 12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활동하는 누리꾼'인 YOU(당신)를 선정했다. 여기서 '당신'이란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웹(Web)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인물을 뜻한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온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세상에서 이제 '당신'이 'User'라고 할 수 있다. YOU(당신)가 제작하는 UCC는 웹 2.0시대의 대표적 활용 모델이다. 지금은 웹 3.0을 넘어 인터넷 혁명 속에 살고 있다. 아니 인공지능(AI) 시대에 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지정되었다.

지금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없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첫 출시가 1993년이지만, 대중화된 것은 불과 10~20년 정도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제 모든 국민은 다 사진작가요, 영화감독인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얼마 전 도움을 받아 챗GPT를 사용해 노래 가사를 만들어 보았다. 챗GPT는 오픈AI가 개발하고 2022년 11월에 출시한 생성형 인공지능

지능 챗봇이다. 이것이 세상이 등장한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된다. 대화를 통해 노래가사를 몇 번 수정하고, 이를 SUNO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 장르, 구조, 감정론과 내용을 정해두면 본인 취향에 맞게 노래를 만들어 준다. 이제 국민 누구나 작곡가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며, 자기 노래 한 곡씩은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도 이제는 모바일 정부다. 휴대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고 받는다. 미디어도 1인 미디어 시대다. 전통적인 매거진 미디어 시대는 저물어가고, 종이매체 대신 온라인 신문이, 공중과 못지않게 팟방이나 유튜브 방송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인 방송시대.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문화기본법(제4조)에서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시대의 변화는 국민이 두루뭉술하게 주권자라고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이 주권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주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도,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민은 주권자로서 이제 깨어나야 한다. 국민 모두가 규범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누구나 영화감독·사진작가·작곡가일 수 있는 시대에 국민 내지 주민은 주권자로서 자기정체성을 자각해야 한다. 주민임을 자각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그 자유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 집회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진행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신청이 아닌 신고로 규정된 것은 집회를

성숙한 집회문화는 모두의 의무

계약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체 측과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집회 과정에서 소음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기준치를 넘는 확성기 사용으로 인근 상가·학교·가정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더 이상 정당할 권리가 행사될 수 없다. 아울러 질서유지인 배치 등 안전관리 역시

필수다. 참가자뿐 아니라 현장을 지나는 시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때 집회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불법 집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되,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 문화는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다.

<박준일·곡성경찰서 경비반보>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대한민국 AI, 광주·전남이 선도하는 건 시대적 과업

김영록 전남지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라도 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역대급 쾌거로,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는 경천동지(驚天動地)'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AI 선도기업 오픈AI와 SK가 전남에 전용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구상을 발표한 직후 환영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광주시도 대한민국 AI산업의 저변을 넓힐 기회이자 대한민국 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이재명 대통령이 샘 알트만 CEO, 최태원 회장과 함께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식화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세계 굴지의 오픈AI의 혁신적 기술과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종합 역량이 결합하는 미래 비전이다. 광주가 국가AI컴퓨팅센터에 올인하는 가운데, 전남의 지형을 바꿀 초거대 프로젝트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의 설명대로 민간 데이터센터가 특정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전용 공간이라면, 국가AI컴퓨팅센터는 산업 전체를 위한 공공재라고 보여진다. 대한민국 AI의 양대축으로 광주와 전남이 시너지를 발휘

하기를 바란다.

특별한 명절 선물이었다. 핵심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도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돼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다. 더불어 민주당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할 전국적인 지원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는 바,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돼야 한다. 당연히 보이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전에 울산이 뛰어들었다지만 기우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광주는 국가 주도, 전남은 민간 주도' 입장문의 합의가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 전남도는 역사적인 투자가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이미 조성된 국가AI데이터센터에 더해 국가AI컴퓨팅센터와 싱크탱크인 국가AI연구원 등 3대 시설 완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AI(인공지능)는 모든 산업군을 이끄는 성장동력이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국가와 민간의 인프라를 결합한다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독보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낙후의 대명사' 광주·전남이 손잡고 글로벌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급증한 채무불이행 자영업자 개인의 문제만은 아냐

광주·전남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와 연체액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불황의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광주 8만5천130명, 전남 13만2천535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전체 13만9천9명, 전남 28만8천9명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상황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 채무불이행도 광주 4천929명, 전남 6천422명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2020년 1천313명에서 3.7배, 전남은 1천563명에서 4.5배 뛰었다. 대출액도 눈덩이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광주는 18조7천619억원에서 24조7천889억원으로 1.3배, 전남은 19조6천894억원에서 30조7천629억원으로 1.5배에 달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는 광주가 8천969억원으로 4.5배, 전남은 1조513억원으로 4.7배 이상이나 급증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빚을 낸 이후 빚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실정이다. 그

렇다고 폐업도 쉽지 않다. 대출 연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환 압박에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하는 사업자가 많다.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빚으로 버티며 근근이 사는 고달픈 현실이 드러났다. 저소득·저신용으로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가 늘고 있다. 은행·비은행을 망라해 최대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에서 하위적거리고 있다. 불경기와 고물가로 인해 매출이 급격 감소하면서 폐업 증가와 상환 불가능 상태에 이어지고 있다. 금융 취약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신용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저성장 추세가 뚜렷해지며 소비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체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단기적 담감만으론 한계가 있다. 물론 도덕적 해이도 관리돼야 한다.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한 대출 이자 조정, 상환 유예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과 상관없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아침물어는 詩

가을 시편(詩篇)

홍성란

사랑도 몸 무거우면 이별을 날으리니,



이별도 길이 멀면 그리움을 날으리 그리움 깊어지면 눈물에 몽개지리 몽개져 시고 뚫은 미움을 날고 원망을 날고 날아서는 애인 떨어져나갓 사랑도 새 물결이 드니,

꽃날이 문드러져도 원수같이 붉은 사랑! (시조시집 '따뜻한 슬픔', 책 만드는 집, 2003)

[시의 논]

문학성과 대중성. 이들은 언어예술의 피치 못할 절대 요건. 시학의 완결성을 겨냥한 필요 충분조건은 치밀함과 섬세함의 미학주의를 바탕으로 갖춰지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세계와 자아의 연동을 인식해 내밀한 언어로 집요하게 삶을 탐문하는 시인의 자립적 의지가 시선을 잡아끈다. 가을, 도대체 가을이란 이 특별한 계절이 시인의 서정적 자아를 어떻게 건드리고 움직였기에 '사랑도 몸 무거우면 이별을 날으리니'라는 전제를 깔만큼 무겁고 쓸쓸한 그리움의 시상을 전개토록 이끈 것인가. 세계와 자아의 성급한 화해로 마무리되곤 하는 일반 서정시와 빛깔을 달리한 '가을 시편', 들여다보면 사유의 연쇄적 연결고리를 지어 원수같이 붉은 사랑의 부조화를 차근차근 아픈 기억 속에서 토로하고 있다. 강물에 풀이 흘러보낸 서정적 자아의 사랑과 이별. 긴 이별과 깊은 그리움과 몽개져 시고 뚫은 원망과 애인 떨어져 나간 한참 후에야 질러 나간 물결들이 주섬주섬 새 빛깔로 내면을 물들이는, 그리하여 사랑과 이별은 또다시 가슴을 치는 아픔과 성찰의 언덕에 서정의 주체를 홀로 세워놓는다. 이별과 붉은 사랑, 그리움의 상채기를 날리는 상충성으로 결합된다. 처연한 아름다운 이별이다. <윤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Fax. Includes sections for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and 광고문의, 마케팅, 경영지원, 사업본부, 업무국.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